

청주 소년원

○ 매체 : 뉴시스(2026. 9. 26.)

○ 제목 : “내년엔 꼭 가족과”...청주 소년원생들의 특별한 추석

"내년엔 꼭 가족과"...청주 소년원생들의 특별한 추석

절도 등 비행 122명 입소 생활...추석 송편만들기 체험 등 다채

"한때 실수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애정·관심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미평여자학교.

'커피바리스타 2급 실기 시험장'이라고 적힌 교실 문을 열자 에스프레소 기계로 원두 커피를 내리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원생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추석을 앞둔 들뜬 분위기보다 자격 시험이 임박한 아이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네일아트, 헤어디자인 실습이 한창인 옆 교실에서도 직업훈련이 한창이었다. 원생들은 마네킹 손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인조 머리카락에 롤을 말아보며 미용 기술을 익히는 데 여념이 없었다.

교과 수업만 보면 여느 중·고 직업 학교와 다를 없지만, 이곳은 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받은 비행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생활지도 등 사회복귀를 돕는 인성전문교육기관 청주소년원이다.



추석 당일인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미평여자학교(청주소녀원)에서 보호소년들이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고 있다.

법무부는 청주소녀원을 포함 전국 소년원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교육 소년원 4곳, 직업훈련 소년원 5곳, 의료재활 소년원 1곳이다.

청주소녀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자 보호 소년의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전담한다. 법원 소년부가 9호(6개월 이하 단기), 10호(2년 이하 장기) 처분을 한 아이들이 수용돼 있다.

이곳에는 비행청소년 122명(13~20세)이 생활하고 있다. 범죄 유형은 보호관찰법 위반, 강·절도, 소년법 위반, 폭행, 마약 등 다양하다.

소년원생 대부분은 비행청소년이지만 이곳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하루를 보낸다.

오전 6시30분 기상, 오후 9시 취침까지 직업훈련과 교육, 식사, 자유시간 등이 이어진다.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내부에서도 교사의 지도에 따라 이동한다. 숙소는 1인실과 4인실로 운영된다.

오늘은 추석 아침이다. 처음에는 난 전채로, 나아서 차례를 지냈는데 한 번 더 완벽하고 정식으로 차례를 지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찬살 거의 3~3년 동안 영절 때 안에서 보내기도 했고 한복을 입었는데도 꽤 고래 되었는데 오복 제방만 대표로 뵈어서 전통적으로 차례를 지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오랜만에 입은 한복이라 되게 아팠는데 같은 순간부터 원시 모으게 조심해 지고 그동안의 나를 되돌아 보았다. 절을 드린 안락하지만 뒤에서 폭행을 하며 잔년에 102로 있을 때 돌아간 할머니를 생각하며 비통으로 '할아버지 꼭 멋진 성인이 되어서 제가 뵈었했었을 때 찾아 뵈러 갈게요. 화들에서 지켜봐 주면, 찬살 귀찮고 지루해요 할아버지'를 정말 바랐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안에서 있다가 노후 영절에 찾아 뵈기를 못했는데 >이 너무 후회되었다. 너무 화들했고 내가 한방이라도 하면 안락한 정말 잘 살아야 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반자로 수월 되면 화들이라 생각도 없고 정말로 또 안에서 영절을 보내고 나간다는 것에 현타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바음이 놓일 수 있게 피로감을 인동어 주셔서 감사했다. 한복 입은 모습을 보시고 생들이 이런만큼 해주셨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기쁘고 되찾아서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살아야 겠다. 아 그리고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땐 이었어서 찬살 땀 뒤통에서 친모와 같이 구경만 하며 하루 동안 있었는데 모돈으로 치러에 관한 반목을 자서히 알게 되었다. 그 때는 절도 잔자들이 그런 절을 했는데 오늘 많은 기분 여정들을 배운 것 같다. 스무살만에 이런 것도 잘 노고 있는 것에 부끄러움이 났지만 이제부터라도 알게 되었으니까 좋은 것 같다. 정말 귀하고 있어야 겠다. 차에 붙고 속까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끼씩 먹고 싶은걸 딱게 해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 정말 이제는 이곳에 다시 안들고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간 것 같다.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추석 연휴 자선 마지막 같은 날까지 잘 생활해서 잘 마무리 하고 이점 생활을 마무리해야 겠다. 그리고 이제는 밖에서 영절을 보내야 겠단 다짐했다. 꼭! 이런 큰비 해주셔서 감사하네.

추석 당일인 25일 충북 청주미평여자학교(청주소녀원) 보호소년이 추석 차례를 지낸 뒤 작성한 소감문.

추석 연휴엔 훈련·교육은 없고, 독서 등 자유시간으로 채워진다. 명절 특별 프로그램은 투호와 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와 부모에게 손 편지를 써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올해는 원생들이 송편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료 손질부터 반죽, 소 넣기, 찌는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용된 A(19)씨는 "추석 명절마다 할머니가 차려를 준비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할머니를 돕지 못한 게 죄송스럽다. 사회로 복귀하면 매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착실한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

정영 교무과장은 "원생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생들이 바르게 성장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매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겠다는 다짐으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추석 명절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원생들이 많다"며 "아이들이 한때의 실수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청주=뉴스시스] 서주영 기자 =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1일 충북 청주미평여자학교(청주소녀원)에서 보호소년이 헤어디자인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2026.09.21.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